

출 장 보 고 서

I. 출장 개요

1. 출장목적

- 일본에서 2015년 4월 제정된 도시농업진흥기본법의 의의와 특징 파악, 동경도의 도시농업 실태 등을 조사하여 ‘도시농업 중장기발전방안 연구’에 활용함.
- 제2회 동아시아농업유산학회에 참석, 각국의 농업자원 보전과 활용 실태 등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농업자원 보전과 활용을 통하여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함.

2. 출장자

부서명	직 급	성 명
농업발전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김 태 곤

3. 출장지역 및 출장기간

- 일본 도쿄, 니이가타, 가나자와
- 6월 21일(일)~28일(일) 7박 8일

4. 방문기관 및 면담자

코다이 히토시(小平 均)	농림수산성 농촌진흥국 농촌환경과 과장
모리타 켄타로(森田健太郎)	농림수산성 농촌진흥국 농촌환경과 과장보좌
나카무리 코지(中村 浩二)	가나자와대학 교수
코지 신사쿠(小路 晋作)	가나자와대학 지역연계추진센터 준교수
가와바타 헤이이치(川畠 平一)	가나자와대학 지역연계추진센터 객원교수
이치가와 가오루(市川 薫)	유엔대학 지속발전연구소 연구원
유이 분(桃 猛芳)	유엔대학 지속발전연구소 연구원
카이 모토나리(甲斐 元也)	니이가타현 사도시 시장
사사키 미노루(佐々木 稔)	니이가타현 사도지역진흥국 국장

II. 출장 결과

1. 도시농업진흥에 관한 정책추진

□ 도시농업진흥기본법 제정

- 도시농업을 안정적으로 지속시키고, 농업과 공존하는 양호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2015년 4월 제정되었다.
- 일본은 텃밭농원의 개설을 지원하기 텃밭용도의 농지임대차를 허용하는 등 소극적인 입장에서 전환하여, 도시농업을 진흥해야 할 중요성에 대해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하였다.
- 제정 목적은 ① 도시농업의 기능 발휘와 농지의 효율적인 활용, ② 양호한 시가지를 형성하기 위한 농업과의 공존, ③ 도시농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 촉진 등이며,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기본계획과 기본적인 시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제정 의의

- 기본법 제정은 도시농업의 다양한 역할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그 중요성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할 수 있다.
- 도시농업은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고, 태풍이나 지진 등 재해가 빈번한 일본에서 재해 시의 안전한 대피공간으로 기능하며, 도시민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농지공간이 되면서 농업체험이나 교류 등 새로운 비즈니스 장으로서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 도시농업의 미래상

- 일본은 도시농지에 대한 상속세납세유예제도 등과 같은 세제를 통하여 토지공급의 증가를 도모해 왔다. 최근 도시농업을 광의의 도시계획, 녹지 보전, 지역사회 형성, 교육·문화 등 도시 생활상의 문제와 밀접하게 결부하여 위치 설정하고자 하는 입장으로 전환되고 있다.
- 일본에서 도시농업진흥기본법이 제정된 배경에는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도시주민에게 널리 인지되고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농업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농업은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기본적인 역할을 넘어서, 도시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

련이 있다.

- 농업은 생산이라는 1차산업 중심에서,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다양한 가공 식품 개발, 유통이나 직판 등에 이르는 2차·3차산업으로의 확장을 통하여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가가치를 향상하는 등 성장산업으로서의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되고 있다.

2. 동아시아농업유산학회

- FAO가 지정하는 세계농업유산의 효율적인 발굴과 보전, 가치창출을 위한 다양한 활동 등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기 위하여 한국, 중국, 일본 등(필리핀)이 참가하는 동아시아농업유산학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 금년은 제2회로서 일본 니이가타현(新潟縣) 사도시(佐渡市)에서 개최되었다. 2016년 제3회 대회는 한국 금산에서 금산인산을 소재로 개최된다.

3. 사도시의 세계농업유산

- 사도시는 농약 등의 요인으로 멸종된 따오기(朱鷺)를 복원한 사례지역이다. 조류를 매개로 하여, 농업, 지역상공업, 소비자 등의 연대하여 지역활성화를 도모하는 사례로서 특징이 있다.
- 사도시는 세계농업유산 외에도 세계문화유산, 세계자연유산 등의 지정을 위해 지역자원을 발굴하여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4. 다랭이논 보전

- 사도시 오구라(小倉) 마을은 급경사지에 다랭이논의 밀집한 지역이다. 다랭이논을 보전하기 위하여 오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 오너제도는 사도시가 토지소유자로부터 농지를 집단으로 임차하여, 오너제도의 참가를 희망하는 자에게 임대하여 농업을 유지하는 것이며, 실제 운영은 지역의 관리조합에 맡기고 있다.
- 농지는 전체 63필지이며, 1필지별로 오너를 지정하며, 오너는 관리조합에게 1년에 24,000엔을 지불하며, 관리조합은 쌀을 수확하여 30kg을 배달하여 주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농업생산이 유지됨에 따라 다랭이논이 보전되는 효과는 있다.

5. 이시가와현 노토반도의 세계농업유산

- 노토반도는 9개 시정촌을 대상으로 사토야마사토우미(里山里海)라는 명칭으로 세계농업유산에 등재되었다.

- 전통적인 생산방식으로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과 바다에서 생선, 조개류, 해조류, 소금 등을 생산하는 것 등으로 광역 유산으로 지정된 것이 특징이다.

(이상)